

세월호 가족에 한잔, 추모객에 또 한잔... 커피차 몰고 달려갑니다

세월호 엄마들 '커피 선생님' 안준호 목사

3일 오전 세월호 선체가 접안된 목포신항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들었다. 경기도 일산에서 새벽밥 먹고 달려온 세월호 엄마들의 '커피 선생님' 안준호(47·참포도나무교회 목사)씨다.

안씨가 몰고 온 하늘색 쏘울차량 지붕에는 큰 글씨로 '달려라 커피'가, 그 아래엔 '지금 당시에 달려갑니다'라는 작은 글씨가 적힌 팻말이 달렸다. 트렁크를 열고 접이식 탁자를 펼쳐서 '똑딱' 말 그대로 달리는 커피 전문점이 완성됐다. 주전자에선 금세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뜨거운 물이 커피가루와 만나자 커피 향이 퍼져나갔다.

첫 잔이 추출되기도 전 노란 웃을 입은 안산 단원고 희생자 어머니들이 안씨에게서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는 세월호 엄마들이 나타났다. "선생님, 여기까지 오셨어요?", "OO 엄마, xx엄마, 오늘 월요일 오전 우리 수업 있는 날이잖아요! 수업은 못해도 선생이 제자 안부는 확인해야죠."

사제시간 반가운 인사가 오가고 커피를 만들고 향이 퍼져나가는 사이 엄마 아빠들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지난 1일부터 세월호가 접안된 목포신항 향만 철

단원고 생존학생 상대 멘토링하며 인연

세월호 엄마들과 사제시간... 자격증 도전

진도·안산·광화문서 목포까지

커피 봉사하며 바리스타 교육

조망 앞 길 천막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상처투성이 세월호를 마주해왔던 세월호 엄마 아빠 일부는 안씨가 이곳에 나타나자마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굳이 그의 커피 제자가 아니더라도 노란 웃을 입은 세월호 가족들 사이에선 "어, 저 아저씨 광화문에서 봤는데 여기도 왔네", "나는 진도에서, 안산에서 봤는데 또 커피차 몰고 오셨네"라며 반겼다. 세월호 가족들에게 한 잔, 추모객에게 또 한 잔씩 돌리고 나니 준비해온 핸드드립 커피 200잔 분량은 오전에 동났다.



안씨는 지난 2014년 4월 23일 세월호 가족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수학여행을 떠난 고교생을 포함 304명이 숨지거나 수습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서 '커피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인사하고 커피를 끓일 순 없다'는 생각이 들 어 가게 문을 닫고 무작정 진도로 향했다.

참사 초기 진도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목사는 말로만 이웃을 사랑한다'는 세간의 불편한 시선이 늘 마음에 걸렸던 탓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서 희생자 가족들을 뒷바라지했다. 말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려고 차를 몰고 커피 봉사를 다니고, 나무 다루는 기술을 익혀 청년들에게 목수 일을 가르치기도 한다.

커피를 매개로 세월호와 인연이 닿은 것은 지난 2014년 5월께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을 상대로 멘토링 수업을 하면서부터다. 생존 학생들 수업이 끝난 후 그해 여름엔 세월호 희생자의 형제자매에게 커피를 가르쳤다. 커피를 끓이고 마시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지난 2016년부터 세월호 엄마 7명이 그의 제자로 들어왔다. '가슴이 답답하고 쿡쿡거려서 무엇인가에 몰입하지 않고선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어' 커피를 배우겠다며 찾아온 것이다.

커피 전문점 운영 8년차지만 바리스타 경력이 없었던 탓에 제자들이 "선생님도 자격증 없잖아요, 다같이 바리스타 자격증 도전해요"라는 제안을 받

고 8명 전원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에도 도전했다. 지난해 12월 필기시험에 전원 합격하는 작은 기쁨도 함께 맛봤다. 7명의 제자와 바리스타 자격증 없는 선생 안씨는 오는 5월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에도 전원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릴지는 미지수다.

안씨가 커피 차를 몰고 목포를 오지 않는 한 언제 또 제자들과 커피 제조 실습을 할지도 기억이 없다. 세월호 선체가 물로 조만간 올라오고 선체조사 등을 통해 침몰 원인 등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 이 엄마들에게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명이다.

목포신항을 떠나는 안씨에게 "세월호 엄마들 커피 선생 역할이 언제 끝나느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지난해 첫 수업 날 시간에 쫓겼던 탓인지 뒷웃을 뒤집어 입고 나갔다. 유족들 상대로 첫 강의니 긴장을 좀 했는데, 첫 대면부터 땀 터졌다. 모두가 배꼽 잡고 웃었다. 그날 밤 가족이 왔다. '오랜만에 웃었다. 저희는 웃을 일이 없었는데, 커피 선생님이 웃음을 주셨다'는 내용이였다. 그때부터 맘 속으로 이분들에게 평생 가는 커피 선생님이 되자고 다짐했다." /목포=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본부-전남아동복지협 업무 협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최영철)는 최근 전남아동복지협회, 전남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지원협약 및 후원금지원 약정식을 진행했다.



2017 전남아동복지시설 지원 업무 협약식

협약에 따라 재단은 전남아동복지협회 소속 22개 아동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무연고아동 220여명에게 연간 1억7000만원 상당을 지원하게 된다. 또 전남지역 14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속해 있는 전남사회복지관협회에도 올해 2억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후원금은 위기가동가정에 주거지원, 교육비 지원, 생활비 지원 등 아동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데 쓰인다.

최영철 본부장은 "아동복지 업무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해 전남지역 위기가정 2500명의 아동들에게 인재양성과 주거·생계·의료지원 등 27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산악인 엄홍길 네팔에 14번째 학교 짓는다

돌리켈 휴먼스쿨 첫삽

산악인 엄홍길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의 관문인 네팔에 14번째 학교를 짓는다. 엄홍길휴먼재단(이사장 이재후)은 29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돌리켈에서 '쉬리 아자드 고등학교'(이하 돌리켈 휴먼스쿨) 건립을 위한 첫삽을 떴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유치원생에서 고등학생까지 720여 명이 재학하는 돌리켈 휴먼스쿨은 지난 2015년 대지진 피해로 전체 26개 교실 가운데 17개 교실이 복구되지 못한 가운데서 겨우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재단은 부산 도원사(주지스님 만오)로부터 건립 기금을 후원받아 이 학교를 내년에 완공



할 예정이다. 재학생 규모에 맞는 교실 수와 도서실, 커뮤니티실,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한다.

엄홍길 상임이사는 기공식에서 "제2의 고향인 네팔에서 휴먼스쿨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 삶의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학생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엄홍길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천m 고봉 16좌 등정을 기념하기 위해 2008년 엄홍길휴먼재단을 세우고, 네팔 오지에 학교 16개를 지어주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금연주자 김기종씨 나주서 특강

나주 출신 대금연주자 백문 김기종(53·사진)씨가 5일 오전 10시30분 한국농어촌공사 아트홀에서 '차문화 예술과 인성교육-品茶(포다) 品味(포미) 品人生(포인생)'을 주제로 특강한다.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어촌공사 전 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날 특강에서 김씨는 "차를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인성함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차문화와 인성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성숙해 가는 동반자"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차임으로 즉석 연주를 하는 조적(포리리) 명인이기도 한 김씨는 전남대 읍대에서 임용선(전남도 무형문화재 13호) 선생에게 삼현육각(가야금·거문고·비파·피리 2·대금·해금·북·장구)을 전수받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국악을 전공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김영길씨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에

김영길(사진) 성형외과 원장이 최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4년.



김 원장은 김재철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김진섭 정형외과 원장, 양해영 KBO 사무총장, 이종훈 도와이씨 대표이사 등과 함께 부회장을 맡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해 대한야구협회·대한소프트볼협회·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가 통합돼 설립됐으며, 김용운 전 한화 감독이 선거를 통해 초대 회장에 올랐다.

그는 광주시 동구사랑스포츠클럽 회장(2007~2009년), 광주시 동구생활체육회 회장(2010~2016년) 등을 역임했다.

김영열기자 wool@kwangju.co.kr

인사

- ◆뉴스시 광주전남본부
- ▲대표이사 조덕선 ▲본부장 겸 취재국장 구길용

'신문을 펴는 즐거움, 정보를 향한 설렘' 대상

신문의 날 표어 수상작 선정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제61회 신문인의 날 표어 대상에 '신문을 펴는 즐거움, 정보를 향한 설렘'(이충근·53·전북 전주시)을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우수상에는 '진실을 담아 독자곁으로, 꿈을 담아 세상속으로'(배오현·64·경기 안양시)와 '신문은 국민을 읽고, 국민은 신문을 읽습니다'(조경희·61·서울시)를 뽑았다.

심사위원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여

전히 독자들에 충분한 볼거리와 정보를 갈망한다"며 "대상 수상작은 읽기의 즐거움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신문이라는 점을 대구와 운운 형식에 맞춰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상패가,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과 상패가 각각 수여된다.

시상은 4월 6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제61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서 갖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이흥묵)는 4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이복재·한염주(보성군 조성면 축내길)씨 부부와 이경석·김승미(진도군 임회면)씨 부부를 선정하고 지난 31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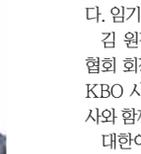
이복재(54·한염주(49)씨 부부(다래사랑농장)는 1997년 귀농 후 9917㎡(3000여평)으로 다래 재배를 시작해 현재는 9만2561㎡(2만8000여평) 규모를 이룬 성공한 귀농인이다.우수한 품질의 참다래를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및 GAP 인증 등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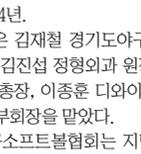
이복재씨



한염주씨



이경석씨



김승미씨

이경석(58·김승미(50)씨 부부(매정농장)는 30여년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벼농사 1만9800㎡(6000여평)을 비롯하여 대파, 배추, 보리 등 총 3만4720㎡(1만500여평)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우수 재배 기술 개발 및 습득을 위해 관내의 우수 농가들과 적극적인 교류활동도 펼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박주옥(광주시 북구 안전도시국장)·김금옥씨 차남 정호군 김진학(광주시 광산구 삼도동장)·이정자씨 장녀 지선양=8일(토) 낮 12시 광주시 광산구 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010-6678-2258.

▲서정훈·박명숙씨 장남 범석군 김기석(대호엔지니어)·김민욱씨 장녀 수영양=22일(토) 낮 12시30분 서울 강남 피에스타 귀족 1층 노블리티홀. 피로연=7일(금) 오후 5시 30분 힐리데인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

등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 월례회=5일(수) 오후 6시 30분 광주시 동구 화랑궁회관 062-224-1800.

▲제5회 재광 금일중 동문회 정기총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15일(토)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광주 송원대학교 대운동장(우천시 강당), 문의 이경택 사무총장

010-3627-2273.

종친회

▲경주김씨 광주·전남종친회 재광 회원 모임=5일(수)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구 카톨릭센터 뒤편) 맛집 한겨레, 문의 김재찬 010-6455-6296.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화순분원(분원장 이호근) 정기총회=5일(수) 오전 11시 화순군 화순읍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 문의 분원장 이호근 010-3629-0980.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함평분원(분원장 이석현) 정기총회=6일(목) 오전 11시 함평군 함평읍 함창로 1202-11 함평읍파출소 문의 분원장 이석현 010-4155-0120.

▲경주배씨 광주중친회(회장 배경석) 시조 문양공 춘양대제봉행 대총회 안내=18일(화) 낮 12시 경북 경주시 남간길 87(탑동 830-1) 시조사당 경덕사, 광주 동부경찰서 인근 오전 7시 출발, 문의 010-8623-4949.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 모상담, 임양상담 24시간, 미혼양육모 지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원, 심리상담센터 운영 062-222-9349.

▲국토정보청기 광주서구점 무료 청력검사=노인 대상 방문 무료 청력검사, 청각장애인 상담, 가동 불변시 가정방문 청력검사 문의 062-375-9275.

▲'금융컨설팅' 채권·채무·채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채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충남재가복지센터 회원=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장애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뇌병변장애인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광산구장애인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타 가전 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부음

▲김장공(전 국회의원)씨 부인상=발인 4일(화) 서울 서대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1호 02-2002-8477.

▲윤희자씨 별세 김근해씨 모친상 진석 만시 방모상=발인 4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김용봉씨 별세 성중·성용·선자·선화씨 부친상 최중숙·백선주씨 시부상=발인 4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김향자씨 별세 정연기·연용·연남씨 모친상 김연숙·김숙희·정수영씨 시부상=발인 5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p>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p>	
<p>201호 故임공예 님(여/88세)</p> <p>子/子婦 : 조성열/김순옥, 순환, 삼정/김기영 女/婿 : /성기정, 조순임/박석기, 성숙/지경태 순하/김종관 *발 인 : 4월 4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1</p>	<p>401호 故이승자 님(여/65세)</p> <p>子/子婦 : 이경원/김진경 女/婿 : 이희정/한동훈, 수정/고병관 *발 인 : 4월 5일 *장 지 : 원도 고금 선영 *연락처 : 227-4383</p>
<p>101호 故이세준 님(남/72세)</p> <p>子/子婦 : 오남환/이영순, 귀환/전혜자 女/婿 : 오명기, 명중, 한중 *발 인 : 4월 4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000</p>	<p>102호 故주해영 님(여/56세)</p> <p>子 : 김대경 女 : 김영미 *발 인 : 4월 4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5</p>
<p>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p> <p>금호 장례식장 062-227-4000 대표이사 구제길 www.mykumho.com</p>	